

CONTENTS

I.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방송 산업 동향

1. 정책 및 규제 기관
2. 정책 및 규제
3. 산업구조 및 특징
4. 산업 주요 이슈
5. 한국과의 협력 현황

II.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1. 소프트웨어
2. 인터넷서비스
3. 통신
4. 디지털콘텐츠
5. 방송스마트미디어
6. 정보보호
7. 클라우드 컴퓨팅
8. 사물인터넷
9. IT스마트융합
10. 전파위성
11. 디바이스

III. 인도네시아 유망제품 진출전략

1. 유망품목 도출
 2. 유망제품 선정
 3. 유망제품 유통구조
 4. 현지 진출 기업 사례
 5. 유망제품 홍보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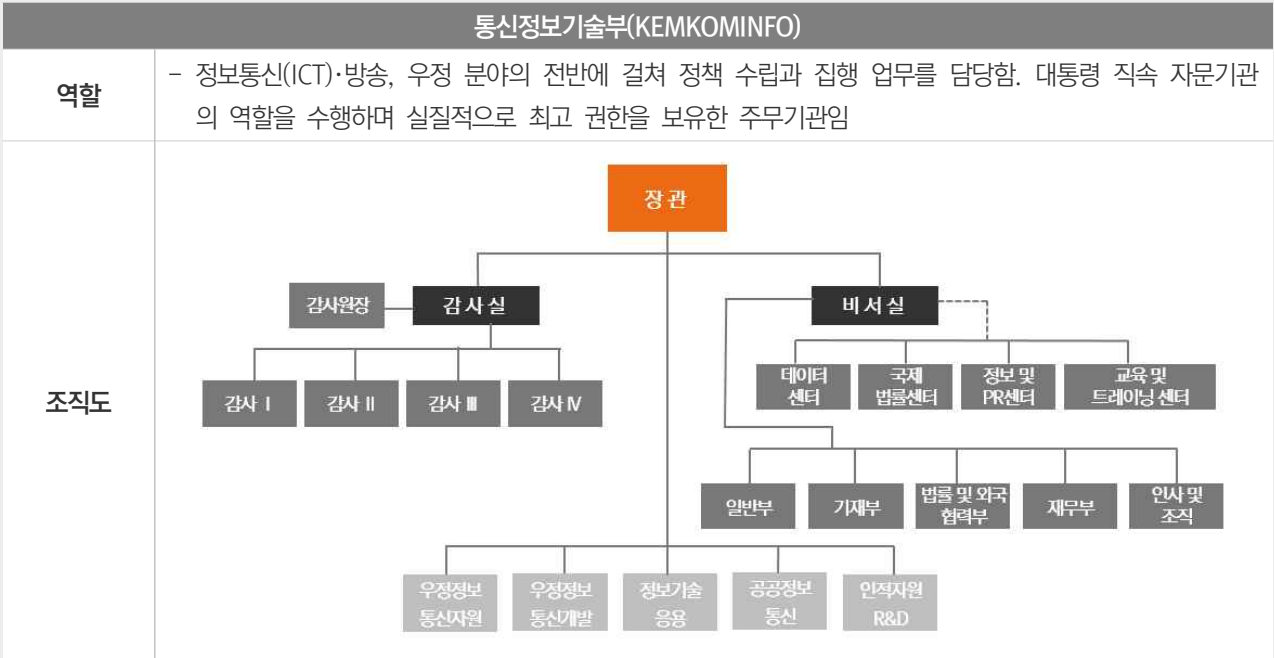
I.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방송 산업 동향

1. 정책 및 규제 기관
2. 정책 및 규제
3. 산업구조 및 특징
4. 산업 주요 이슈
5. 한국과의 협력 현황



Overview

※ 주요 정보통신방송 기관



※ 정보통신방송 주요 정책

인도네시아 정보통신(ICT) 2025 계획

- 정보통신(ICT)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ICT) 인력자원 개발, 법 및 제도 장비를 통한 2025년 지식 기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ICT) 2025 계획’을 수립함
- 2015년 정보사회 진입, 2020년 정보통신(ICT) 기반의 국가 건설, 2025년 지식 기반 사회실현을 목표로 삼음

Palapa Ring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핵심 백본망(Backbone Network) 구축을 위해 총 33개주(州) 440개 시·군 지역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는 사업 참여자에게 인터넷과 기타 통신사업 참여권을 확보해 주는 전제로 외국계 통신투자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왔음. 그러나 시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프로젝트 진행이 정체됨

Palapa Ring II 프로젝트: Palapa Ring 수정안

-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는 2015년 8월 7일, 기존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지역, 효율성 및 경쟁 확산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구현 패키지로 보완 구성한 ‘Palapa Ring II 프로젝트’를 발표함
- 광케이블 연장선은 8,395km, 2억 4,674달러 규모였으나, 수정안인 ‘Palapa Ring II 프로젝트’의 규모는 8,479km, 2억 3,065달러로 광 케이블 길이는 연장되었으나 예산은 다소 감소함

※ 한국과의 협력 현황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 해외 진출지원 호조(2016.11) - 행정자치부, 인도네시아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 역량강화 교육(2016.07) - 서울시, 인도네시아에 우수정책 수출 합의(2016.06)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인도네시아 금융공기업 SMI와 MOU 체결(2016.11) -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와 간편해외송금 업무협약 체결(2016.08) - SK텔레콤,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텔콤(Telkom)과 MOU 체결(2016.05)

1. 정책 및 규제 기관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KEMKOMINFO) 장관 프로필		
성명	루디안타라 (Rudiantara) 	
직급	장관	
학력	파자자란대학교 통계학	
주요 경력	2014.10 ~ 현재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2008	인도네시아 통신 협회 (ATS) 사무총장
	2006	텔콤 COO
	2005	PT XL Axiata TBK 이사
	1996	Indosat 사업 개발 본부장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는 정보통신(ICT)·방송, 우정 분야의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과 집행업무를 담당함.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최고 권한을 보유한 주무기관임

2005년 우정통신국(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과 통신정보부(Stat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가 통합되어 설립된 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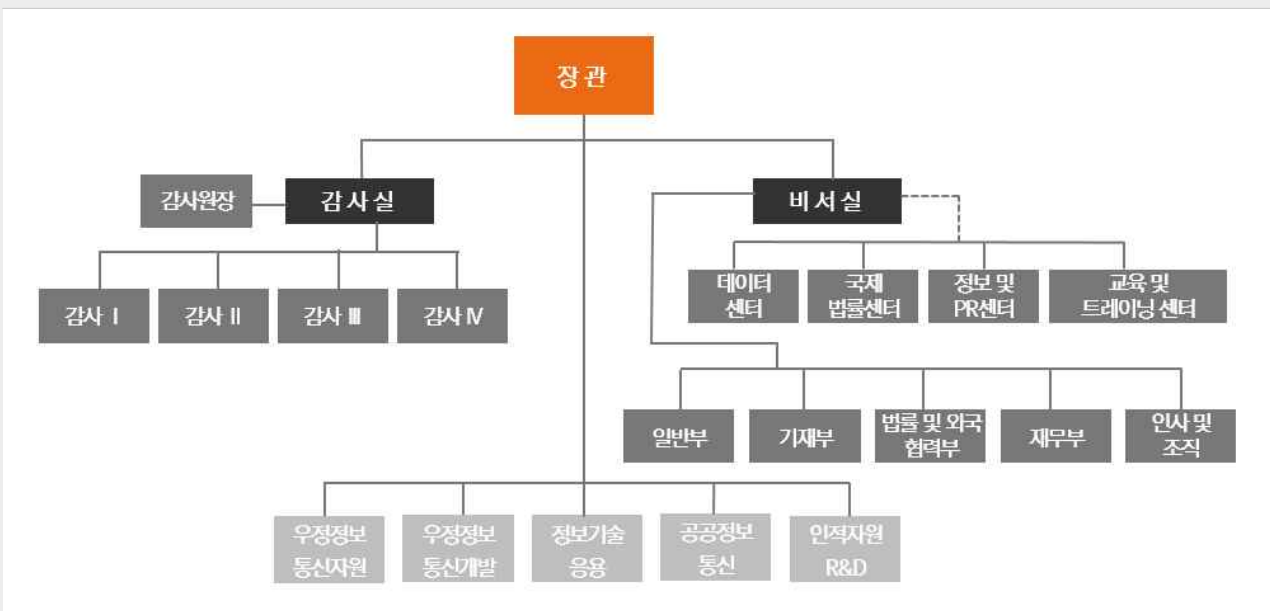
2009년, 통신정보기술부의 약어 명칭을 DEPKOMINFO에서 KEMKOMINFO로 전환함(KOMINFO로 칭하기도 함)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홈페이지	www.kominfo.go.id
통신방송 분야의 정책 총괄	
주소	Jl. Medan Merdeka Barat no. 9, Jakarta 10110
전화번호	+62 21 3452841

인도네시아 통신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지형 상 효율적인 수단인 무선 기술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LTE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4G FDD LTE 스마트폰 공급사에게 부품의 30%를 현지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그림 1.1 :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조직도



출처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부 홈페이지(www.kominfo.go.id)

통신규제국(BRTI,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통신규제국(BRTI)는 전기 통신규제위원회와 우정총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조정 기능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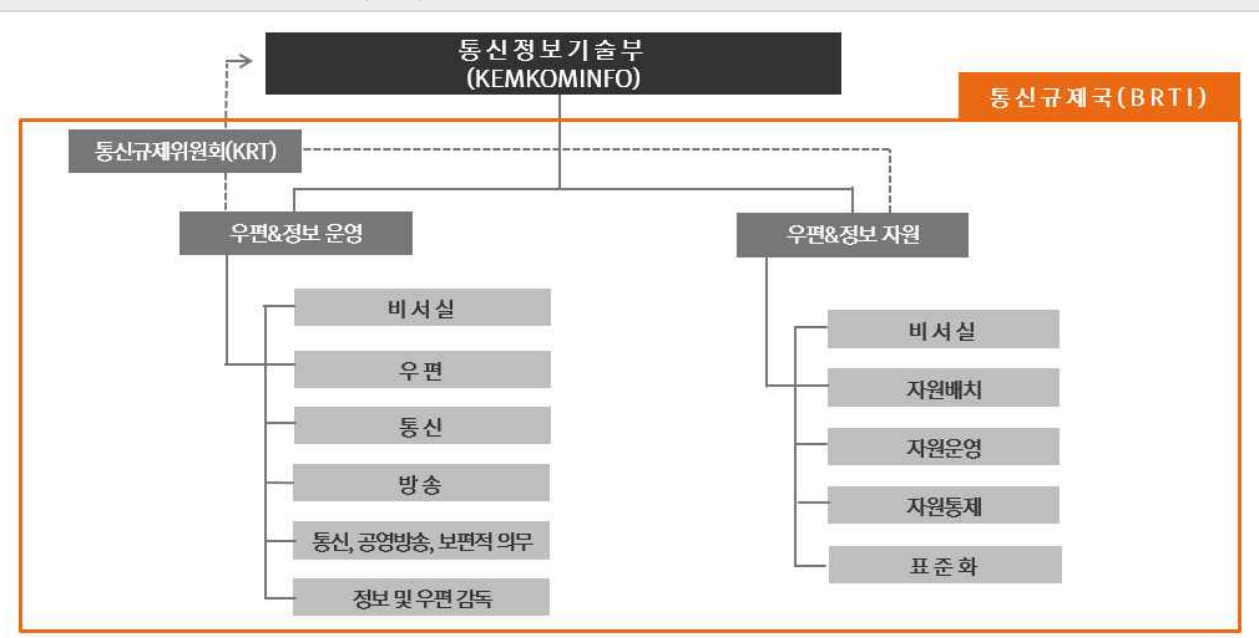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가 기본 통신 서비스에 대한 조약(1997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에 의거해 독립적인 규제 감독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권고한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용, 통신 네트워크 운영의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립함

통신규제국(BRTI) 이전에는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에 통합된 우정통신국 (Stat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이 규제 및 감독 기능도 담당했으나, 2000년 8월 통신법 개정으로 통신규제국(BRTI)이 규제 및 감독 기관으로 분리됨

1999년 통신법(Act No.36)이 제정된 이후,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은 독점이 폐지되고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체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

통신규제위원회는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정부로부터 2명, 민간에서 5명)되며 위원장은 우정총국장을 겸임함

그림 1.2 : 인도네시아 통신규제국(BRTI) 조직도



출처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부 홈페이지(www.kominfo.go.id)

2. 정책 및 규제

1) 정책

인도네시아 정보통신(ICT) 2025 계획

정보통신(ICT)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ICT) 인력자원 개발, 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2025년 지식 기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ICT) 2025 계획’을 수립함

인도네시아는 정보통신(ICT)과 IT 기반 지식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며,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정부 투명성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2015년 정보사회 진입, 2020년 정보통신(ICT) 기반의 국가 건설, 2025년 지식 기반 사회실현 등을 목표로 삼음

정부는 정보통신(ICT) 2025 계획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책정과 관련 기관과의 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국가정보통신기술회의(National ICT Council)’를 신설함

국가정보통신기술회의는 대통령이 대표직을 수행하는 ‘지도팀’, 통신정보기술부 (KEMKOMINFO) 장관이 대표직을 수행하는 ‘실행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팀’등으로 구성됨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는 ‘국가정보통신기술회의’의 사업국 기능을 담당함과 동시에 민주적 국가통일, 행정서비스 개선, 경제와 사회활동 진흥 등을 목표로 2012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통합 네트워크로 결합하는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함

표 1.1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ICT) 2025 계획

연도	추진 내용
2004	- 정보통신(ICT) 관련 기관·시설 통합
2005	- 정보통신(ICT)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 사이버 법, 전자상거래 도입, 전자정부 지침 공문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
2006 ~ 2009	- 정보통신(ICT)과 IT 정보시스템 활용 능력 배양, 전자정부 기반 정부 투명성 강화
2010	- 2004~2009 추진 프로그램 강화
2015	- 인도네시아 정보사회로 진입
2020	- 정보통신(ICT) 기반의 국가 건설
2025	- 인도네시아 지식기반 사회 구현

출처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협회(ASPILUKI)

Palapa Ring 프로젝트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핵심 백본망(Backbone Network) 구축을 위해 총 33개주(州) 440개 시·군 지역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기획 및 추진함

이 프로젝트는 총 3만 5,280km의 해저 광케이블과 2만 1,708km의 지상 광케이블을 구축해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주요 8개 네트워크와 나머지 지역을 연결하는 초대형 네트워크 구축 사업임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는 이 프로젝트를 2005년 1월 Indonesia Infrastructure Summit 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이래, 사업 참여자에게 인터넷과 기타 통신사업 참여권을 확보해 주는 전제로 외국계 통신투자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왔음

시장의 수요증가로 촉발된 사업이라기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차원에서 추진된 프로젝트로써, 시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프로젝트 진행이 정체됨

Palapa Ring II 프로젝트 : Palapa Ring 수정안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는 2015년 8월 7일, 기존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지역, 효율성 및 경쟁 확신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구현 패키지로 보완 구성한 'Palapa Ring II 프로젝트'를 발표함

원안인 Palapa Ring 프로젝트는 동부 및 서부 패키지로 명명한 구현 패키지로 국민 협력 기반의 프로젝트로 운영됨

광케이블 연장선은 8,395km, 2억 4,674달러 규모였으나, 수정안인 'Palapa Ring II 프로젝트'의 규모는 8,479km, 2억 3,065달러로 광 케이블 길이는 연장되었으나 예산은 다소 감소함

2015년 8월, 이들 3개의 패키지에 참여 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가 있었으며 동부 및 서부 패키지에는 Telkom, Indosat 등의 국내외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함

2) 규제

(1) 정보통신(ICT) 규제

통신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 9월 신규 통신법 ‘No.36/1999’를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통신 산업 구조조정과 해외기업의 시장 진입 등을 통해 통신 부문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함

표 1.5 : 단계별 추진 법안 내용

법안	추진 내용
1989년 기본통신법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서비스는 국영기업만 제공 - 타 서비스는 국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공 가능 - 정부가 요금 결정 - 독점권 부여받은 기업들이 통신 소외지역의 개발을 책임
1999년 통신법 36호(No.36/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산업 구조조정 - 정책과 규제 개선 - 수익성 낮은 지역에 USO 프로그램 적용 - 기본 서비스에도 신규 진입 허용 - USO 서비스 적용 본격화 - 시장이 요금 결정 -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구 설치 - 통신 산업 자유화

출처: Paul Budde

통신 시장 자유화는 2개의 국영 사업자 PT Telkom과 PT Indosat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독점권을 조기에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통신법 36호’를 통해 양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보유한 독점권을 해소해 경쟁 체제를 육성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통신시장 개방을 추진함

PT Telkom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사업의 독점권을 통해 2002년 8월, 시내전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 8월에 시외전화 서비스를 경쟁사에 개방함. PT Indosat은 자회사인 PT Satelindo와 함께 국제전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경쟁사에 서비스를 개방함

통신법은 2000년에 공포된 이후 ①통신 서비스 관련(Government Regulation No.52/2000), ②2010년 1월 통신 네트워크 운영 관련(MoCI Regulation), ③유선 네트워크와 기본 전화 서비스 운영에서의 건전한 경쟁 감시 관련(Decree No.33/2004), ④국가 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 통신기술 계획 관련(Decree No.KM.4/2001) 등 여러 규정을 통하여 실행 중에 있음

2014년 3월 기준 통신규제국(BRTI)은 새로운 통신법 개정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 중이며, 2014년 대통령 선거 후에 의회에 상정될 계획임

통신법 개정안은 최근 통신업계의 변화와 흐름을 폭넓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통신규제국(BRTI)은 중·소 규모의 통신 사업자 인수·합병 등을 통한 4~6개 정도의 망 사업자가 최적이라는 의견을 견지함

외국투자자 규제법

2007년 7월, 대통령령 제76호, 제77호, 2007년 12월 대통령령 제11호 등 일명 'Negative List'를 통해 사업 분야와 기본 조건 등을 규정함

통신사업 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은 同 법안이 공포되기 전 성립된 투자를 제외하고는 유선통신 사업 부문의 경우 최대 상한 49%까지, 이동통신 사업 부문의 경우 65%로 규정함

(2) 방송 규제

IPTV 규제안

2010년 1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가 새로운 IPTV 규제안을 발표함. 해당 법안에서는 IPTV의 법적 범위를 linear & non-linear TV 방송, PPV(Pay-Per-View), 양방향 서비스,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자거래 서비스 등으로 규정함

새로운 IPTV 규제안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유선, 멀티미디어, 유료 방송 라이선스를 확보한 최소 2개의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함. 그밖에도 IPTV 네트워크와 시스템, 서비스 지역, 서비스 품질, 콘텐츠, 보안, 요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이 발표되면서 인도네시아 최대의 유선통신 사업자 Telkom의 자회사 Telkom Vision이 2011년 4월에 IPTV 서비스 면허를 획득하였으며, 2011년 8월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함

콘텐츠 규제안

2004년 8월, 방송위원회(KPI)는 '개정 방송법'에 기초하여 방송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한 사업자의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거나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 없이 외국사업자가 제작한 뉴스를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디지털 전환법

'DTT 전환 프레임워크 법안(Basic Organization Framework for DTT Broadcasting)'인 디지털 전환법은 2009년 10월 16일에 Muhammad Nuh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장관이 승인, 2010년 3월 22일 발효됨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일정이며, 2010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2018년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을 목표로 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2010년 內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등 주요 3대 도시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고 2012년 주요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2013~2017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DTT)을 시청할 수 있으며, 2018년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할 계획임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규제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사 외 지역 방송중계망을 보유해 지방에서 본사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민영 TV 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90%로 제한함. 기존에는 지역 방송중계망이 오직 재송신만을 담당해 모든 프로그램 편성이 재송신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특색을 반영치 못함

이번 규제안은 재송신을 위한 지역 방송중계망을 보유하거나 타 지역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모든 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됨.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최소 10% 이상 방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각 지역별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 및 시청자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50%까지 확대될 방침이며, 상세 일정은 발표된 바 없음

3. 산업구조 및 특징

2015년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산업, GDP 비중 4.7% 차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도네시아의 GDP 규모는 8,156조 4,978억 루피아(약 6,115억 달러)임. 인도네시아 가공업은 1,932조 4,574억 루피아(약 1,450억 달러)로 전체 GDP의 2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정보통신 산업은 423조 635억 루피아(약 317억 달러)로 GDP의 4.7% 기여도를 나타냄.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2013년 이후 꾸준히 10%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ICT 인프라 투자 증가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인 특성 상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린 편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ENNAS,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은 2014년 ‘인도네시아 브로드밴드 계획(IBP) 2014-2019’를 발표함

인도네시아는 ICT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ICT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표 1.2 :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성장률

(단위: 십억 루피아)

코드	산업	GDP		GDP 성장률
		2014년	2015년	
A	농업, 임업, 어업	1,129,052.70	1,174,456.80	4.02%
B	광산업	796,711.60	756,239.20	-5.08%
C	가공업	1,853,688.20	1,932,457.40	4.25%
F	건설업	826,615.60	881,583.90	6.65%
G	도소매 및 차량 수리	1,177,048.60	1,206,074.70	2.47%
H	운송 및 창고업	326,933.00	348,775.60	6.68%
I	숙박 및 급식업	257,815.50	269,054.50	4.36%
J	정보통신 산업	384,407.40	423,063.50	10.06%
K	금융 및 보험업	319,825.50	347,095.70	8.53%
L	부동산업	256,440.20	268,811.40	4.82%
O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96,329.70	310,393.90	4.75%
P	교육 서비스업	263,889.60	283,540.00	7.45%

출처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

4. 산업 주요 이슈

아시안게임 개최 앞두고 정보통신(ICT) 인프라 확충 지원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IT 분야의 외자 규제를 완화했으며, 2018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함

2015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9.2%로 낮은 편이지만 향후 2018년 까지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모바일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75%를 차지하고 있는 2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4세대 LTE로 전환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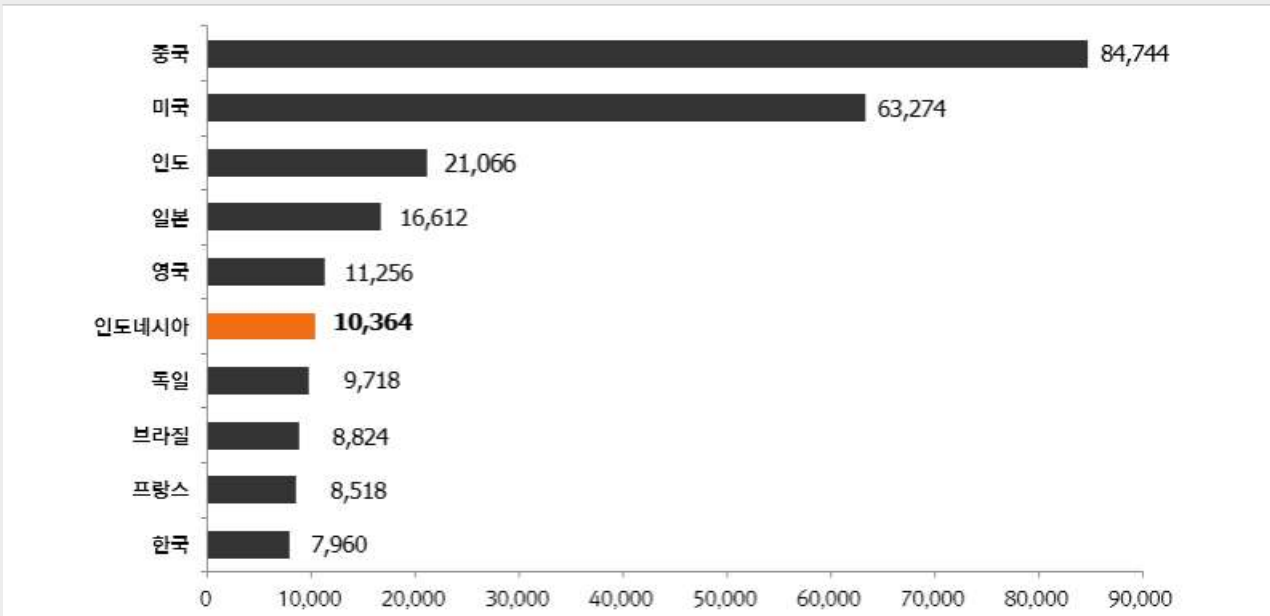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세계 6위 전망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의 스마트폰 매출액은 847억 4,4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2위는 미국으로 632억 7,400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시장은 2012년 6,000만 달러에서 2016년 93억 1,200만 달러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7년에도 103억 6,400만 달러까지 증가하여 독일을 제치고 6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100억 달러가 넘는 수치임

그림 1.3 : 2017년 국가별 스마트폰 매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출처 :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5. 한국과의 협력 현황

1) 정부 간 협력

미래창조과학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 해외 진출지원 호조(2016.11)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Connect. W 2016’ 행사에서는 동남아시아 13개국의 주요 통신사 55개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60개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1대1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됨

행정자치부, 인도네시아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 역량강화 교육(2016.07)

행정자치부는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체험과 시스템 구축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무원 10명(행정개혁부 6명, 정통부 1명, 대통령실 1명, 국가사무처 1명, 정보통신기술위원회 1명)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역량 강화 교육을 2016년 7월 28일까지 진행함

서울시, 인도네시아에 우수정책 수출 합의(2016.06)

2016년 6월,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도시정책 공유 국제포럼」 참가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세계 국가들 중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콜롬보, 인도네시아 보고르시, 베트남 호치민시, 에티오피아 아다스아바바시다 5개 도시(국가)에 우수정책을 추가로 수출하기로 함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소(2016.03)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2016년 개소 및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양국이 함께 운영 예정임

ICT 활용능력 75% 및 전자정부 지수 3.4 달성 목표로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마스터플랜 지원, 전자정부 정책 수립 컨설팅, 스마트시티 구축계획 컨설팅 등 공동 프로젝트 진행 예정임

인도네시아 내 한국형 전자정부의 동남아 수출 거점 마련(2016.03)

2016년도 3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유디 크리스난디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관계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보기술(IT)업계 종사자가 모인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의 문을 열

협력센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행정개혁부 청사 4층에 개설돼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양국이 전자정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공동연구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임

경기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와 정보통신·관광분야 협력 추진(2015.05)

2015년 5월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지사가 정보통신, 경제, 보건, 관광 등에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분야 청년 인재 20명을 초청해 도내 대학과 국내 기업 등에서 신기술관리와 융합기술 연구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박근혜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및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2013.10)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여 인도네시아와 정보기술(IT), 환경, 방위, 산업과 문화 콘텐츠의 영역에서 전반적인 협력을 논의함

김상헌 NHN 대표, 인포피아 배명우 회장 등이 IT 업계 경제사절단으로 대통령 순방에 참가해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함

한국-인도네시아 IT 융합기술 포럼 개최(2013.01)

2013년 1월 한국-인도네시아 IT 융합기술 포럼이 개최됨. 이번 포럼은 한-인도네시아간 IT 관련 기술·비즈니스(Business based on Technology)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임

이번 포럼은 단순 수출입 상담회의 성격이 아닌, 상호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 조사, 기술 이전, 공동개발, 투자 등 기업-기관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해외 로드쇼 개최(2012.10)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은 국내 정보통신(ICT)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남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정보통신(ICT)·방송 융합 서비스 해외 로드쇼를 개최함

방송통신위원회,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와 MOU 체결(2012.05)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Tifatul Sembiring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정보통신(ICT)·방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함

양국 간 회담에서는 사이버 보안 분야, 정보통신(ICT) 인력양성 지원, 방송분야 협력 등 양국의 정보통신(ICT)·방송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함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한-인도네시아 정보통신(ICT) 인증 기술 교류협력 증진(2011.11)

2011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KCC)와 국립전파연구원(RRA)은 한-아세안 정보통신(ICT)·방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미래와 정보통신(ICT) 인증시스템’ 교육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수행함

양국의 정보통신(ICT)·방송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 현황,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 제도와 국가 간 상호인정 현황, 시험기관 운용 현황, 전파 방송통합 관리 시스템, 시험 기술 소개 및 실습 등 총 8개 강의로 진행할 계획임

방송통신위원회-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급 면담 실시(2011.05)

2011년 5월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정보통신(ICT)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이번 장관급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인도네시아 통신 인프라 구축 확대와 Wibro, T-DMB, IPTV 등 다양한 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가 기대됨

2) 기업 진출 및 협력

산업은행, 인도네시아 금융공기업 SMI와 MOU 체결(2016.11)

산업은행은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책금융기관인 SMI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산업은행은 SMI 본점에 코리아 데스크 설치를 통해 한국계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 우량기업 앞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인도네시아 영업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와 간편해외송금 업무협약 체결(2016.08)

우리은행은 2016년 8월,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본점에서 인도네시아 통신사인 인도샷(Indosat)과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함

양사는 '위비뱅크' 간편 송금 서비스인 '위비 킷 글로벌송금'과 인도샷의 전자화폐 모바일 플랫폼 '돔벳쿠(Dompetchu)'를 연계한 해외 송금 제휴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함

SK텔레콤,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텔콤(Telkom)과 MOU 체결(2016.05)

SK텔레콤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영통신사인 텔콤(Telkom)과 IoT 융합 서비스, 스마트시티 및 미디어 솔루션 등 신규성장 사업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

네이버 라인,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호출' O2O 시장 진출(2016.02)

네이버 라인은 2016년 2월, 인도네시아 오토바이택시 서비스 1위 사업자 'Go-JEK'과 제휴를 맺고 인도네시아 O2O 시장에 본격 진출함

서비스 한달만에 이용자 62만명을 돌파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 O2O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KT스카이라이프, 인도네시아 TransVision과 MOU 체결(2015.11)

2015년 11월, KT스카이라이프가 인도네시아 미디어사업자와 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위성방송사인 TransVision과 미디어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음

이번 MOU를 통해 위성과 IP 기술을 접목한 '공동주택형 DCS'를 비롯한 방송 기술 노하우를 수출하고 실내용, 차량용 위성 안테나 공급과 콘텐츠 상호 교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팬택, 인도네시아 텔콤 핀스와 협력 논의(2015.10)

솔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인수된 팬택은 인도네시아 통신 서비스 기업인 핀스(PINS) 인도네시아와 스마트폰과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핀스는 인도네시아 통신 사업자인 텔콤(TelKom)의 자회사로 단말기 기획 유통, 통신네트워크, 스마트빌딩 등의 비즈니스에 진출해 있음

나이스 정보통신, 인도네시아 PG시장 진출(2015.07)

나이스 정보통신은 7월 13일 인도네시아 PG사인 이온페이의 지분 50%를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나이스 정보통신은 국내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온페이에 적용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계획임

네이버-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진행(2014.07)

2014년 7월 네이버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와 ‘라인 디셔너리’ 구축을 위한 6개월간의 예문번역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

SK텔레콤, 인도네시아 內 사회 공헌 프로그램 착수(2014.02)

2014년 2월 SK텔레콤은 인도네시아 정보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IT 교육을 위해 자카르타 지역에 위치한 2개 국립고등학교에 스마트 클래스 시스템을 구축,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착수함

인도네시아 前 대통령, KT스카이라이프 목동 사옥 방문(2013.03)

Megawati Sukarnoputri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목동 KT 스카이라이프 기술 센터를 방문해 최첨단 방송 송출 시스템과 초고화질 방송(UHD-TV) 3D 방송을 시찰하고 위성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함

KT, 인도네시아와 정보통신(ICT) 협력(2013.03)

2013년 3월 KT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부(KEMKOMINFO) 장관과 정보통신(ICT)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KT는 양해각서 체결로 인도네시아에 SI·NI Business, Internet Business, Global Business, Mobile Service 등 통신사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KT, 8,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IDC 사업 수주(2012.05)

이석재 전 KT 회장은 세계방송통신장관 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Ir. Tifaful Sembiring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장관과의 만찬에서 8,000만 달러 규모의 IDC 건립에 협의함

청담러닝, SK텔레콤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진출(2011.10)

ESL 교육기업 청담러닝은 SK텔레콤, 인도네시아 최대 유·무선 통신 사업자인 텔콤과 공동으로 성인 대상 유무선 연동 영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아이넷TV-LBS TV, 한국 및 인도네시아 음악 전문 채널 ‘LBS-I.Net TV’ 개국(2011.05)

2011년 5월 성인가요 채널 아이넷TV는 인도네시아 방송미디어 기업 Lejel의 LBS TV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및 인도네시아 음악 전문 채널인 ‘LBS-I.Net TV’를 개국함

II.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1. 소프트웨어
2. 인터넷서비스
3. 통신
4. 디지털콘텐츠
5. 방송스마트미디어
6. 정보보호
7. 클라우드 컴퓨팅
8. 사물인터넷
9. IT스마트융합
10. 전파위성
11. 디바이스



Overview

※ 2015년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방송 주요지표 (단위: 천 명 / 천 회선 / 천 가구, 2015년 기준)

지표	인도네시아	보급률(%)	한국	보급률(%)
유선통신 가입회선	22,386	8.75%	28,882	58.06%
이동통신 가입자	338,426	132.35%	58,935	118.46%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2,785	1.09%	20,024	40.25%
TV 보급대수	39,186	63.0%	18,237	97.50%
케이블 TV 가입가구	470	0.8%	7,293	38.99%
위성 TV 가입가구	4,193	6.7%	2,008	10.74%
지상파 디지털 방송 가입가구	9,405	15.1%	18,144	97.00%
IPTV 가입가구	1,176	1.9%	8,845	47.29%

※ 각 항목별 보급률은 인구 대비 기준

출처: ITU, Digital TV Research(2016)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주요 사업자	-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 2014' 8조 8,960억 루피아 → 2015' 10조 3,620억 루피아(▲ 16.5%) - 인도네시아 IT 서비스 시장 규모 • 2014' 12조 3,000억 루피아 → 2018' 20조 8,000억 루피아(▲ 14%) - SAP: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두 번째 사무실 설립 - IBM: Telkom Indonesia와 파트너십 체결하여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 발표
 인터넷서비스	시장 동향 주요 사업자	-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 • 2015' 5,000만 4,000명 → 2016' 5,323만 7,000명(▲ 6.5%) -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라자다(Lazada) 지분 매입,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6억 달러 투자 예측 - 페이스북: 2017' 8,780만 명으로 증가할 예상, 전체 SNS 시장의 95.3% 차지 전망
 통신	시장 동향 주요 사업자	-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가입자 수: 2015' 3억 3,800만 명(▲ 6.0%) - 인도네시아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2015' 761만 5,000회선(▲ 20.1%) - Telkom Indonesia: 자회사를 통해 다이얼 업,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 Indosat: 2015년 인프라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 XL Asiat: 2015년 7월 LTE 서비스 개시, 2017년까지 전체 고객의 25%를 4G LTE 가입자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함
 디지털콘텐츠	시장 동향 주요 사업자	- 인도네시아 음악시장 규모: 2014' 1억 5,000만 달러 -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2014' 1억 3,650만 달러(▲ 24.0%) - 스포티파이: 인도네시아 Indosat Ooredoo와 파트너십 체결 - 온더뮤직: 2016년 XL AXIATA와 협력하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방송스마트미디어	시장 동향 주요 사업자	- 인도네시아 TV 보유가구 수: 2014' 4,587만 8,000가구(▲ 2.7%) - 안도네시아 디지털TV 가입자 수: 2014' 767만 6,000명(▲ 33.6%) - 안도네시아 IPTV 보유가구 수: 2014' 45만 9,000명(▲ 415%) - 지상파 TV: TVRI, RCTI, SCTV, Indosiar, ANTV, Metro TV, Global TV 등 - 케이블 TV: HomeCable, TelkomVision, IndosatM2 - 위성 TV: Indovision, First Media, Aora Nusantara TV, TelkomVision

Overview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정보보호	시장 동향 - 인도네시아 사이버 공격 건수: 2010~2013년 약 390만 건, 일평균 150만 건
	주요 사업자 - 트렌드 마이크로: 2015년 직원 확대 등 인도네시아 정보보안 시장에 투자확대 - NEC: 인도네시아 정부와 사이버 보안 능력 개발을 위한 협력 체결 - 포티넷: 인도네시아 현지 리셀러를 통해 제품 공급 전략 수행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시장 규모 • 2013' 3조 8,000억 루피아 → 2018' 16조 루피아(▲ 30.0%)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 • 2015' 2억 8,900만 달러 → 2018' 8억 4,700만 달러(▲ 193.1%)
	주요 사업자 -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한 선거예측 서비스 제공 -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사업자: 화웨이, Telstra 등 글로벌 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사물인터넷	시장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 2018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IoT 스마트시티 구축, ICT 인프라 확충 등 적극 지원 중임
	주요 사업자 - SK텔레콤: Telkom Indonesia와 IoT 기반 사업 및 신규 성장 사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IBM: Indosat과 IoT 플랫폼 NEXThing Ooredoo 공동개발 MOU 체결 - XL Axiata: IoT 서비스 개발 챌린지 개최
 IT스마트융합	시장 동향 - 인도네시아는 도시화로 인해 대량의 쓰레기, 교통 체증, 공무원 부정부패 등 문제 직면,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IT 기술 도입, 수라바야 시에 전자 정부 시행
	주요 사업자 - Telkom Indonesia: 두마이시(市) 정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MOU 체결 - 화웨이: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인 Sinar Nas Land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전파위성	시장 동향 -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산하 우정정보통신자원국이 전파관리 부서별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별로 모니터링 사무소를 설치하여 주파수 이용 감시 및 통제 담당
	주요 사업자 - Telkom Indonesia: 2018년 6월 'Telkom-4' 통신위성 발사 계획
 디바이스	시장 동향 -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판매량 • 2014' 2,367만 9,000대 → 2015' 3,078만 3,000대(▲ 30.0%) -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사용자 수 • 2015' 5,220만 명 → 2018' 1억 300만 명
	주요 사업자 - 삼성: 인도네시아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 OPPO: 인도네시아 현지 유명인을 이용한 마케팅을 통해 2016년 2/4분기 기준 시장점유율 19%로 2위 차지

1. 소프트웨어

1) 시장 동향 및 전망

2015년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10조 3620억 루피아 예측

2014년 7월, 시장조사기관 BM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7조 6,660억 루피아(약 5억 7,600만 달러)로 추산되며, 2015년에는 10조 3,620억 루피아(약 7억 788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함

2014년 인도네시아 IT 서비스 예상 성장률 14%

BMI 분석에 의하면 2014년 인도네시아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3년 대비 14% 증가한 12조 3,000억 루피아(약 9억 2,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됨

IT 서비스 시장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4% 수준으로 지속 성장하여 2018년에는 20조 8,000억 루피아(약 15억 6,50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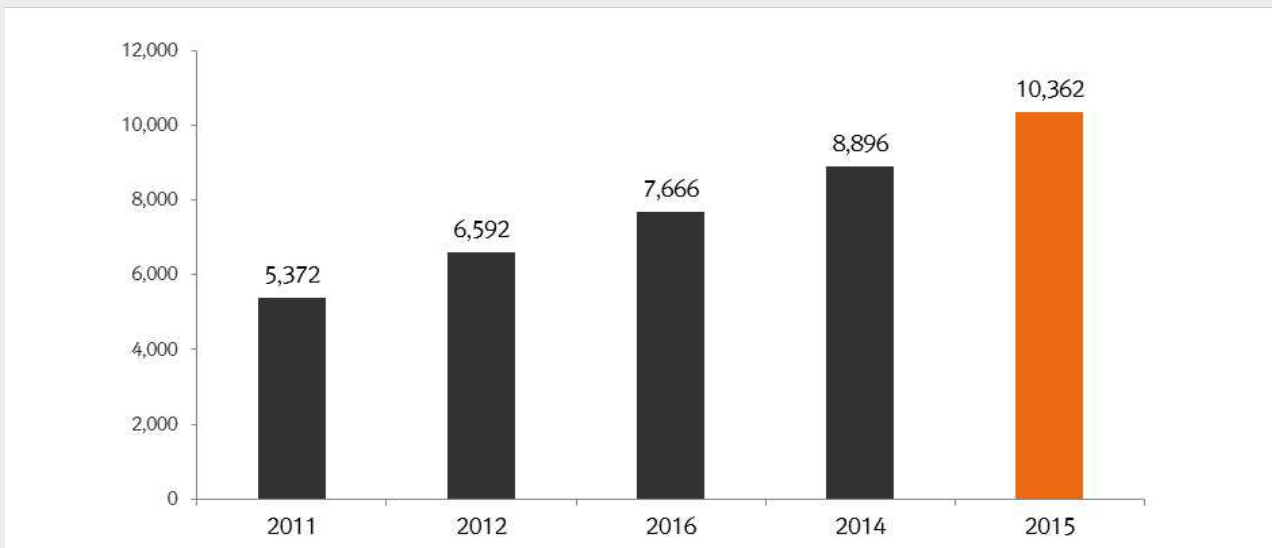
국가 핵심백본망 구축프로젝트 ‘Palapa Ring’ 추진

The Jakarta Post(2016.03)에 따르면 2016년 3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총 33개주 440개 시/군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국가 핵심 백본망 구축 프로젝트인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추진함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통신과 ICT 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2.1 :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루피아)



출처 : BMI, Indonesia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2014.3Q)

2) 주요 기업 현황

기업별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시장 개척 본격화

2015년 3월, SAP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두 번째 사무실을 개설하고 보다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2015년 기준, 기업 ERP SW시장에서는 SAP가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꾸준한 성장이 예측됨

2013년 4월 Telkom Indonesia는 IBM과 파트너십을 체결, 데이터 서비스 개선 작업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함. 2006년부터 IT 시장에 뛰어 들었던 Lexmark도 2011년 잉크젯 프린터 시장공략을 멈추고 2010년 이후 10여 개의 현지 SW 기업들을 인수하며 기업 솔루션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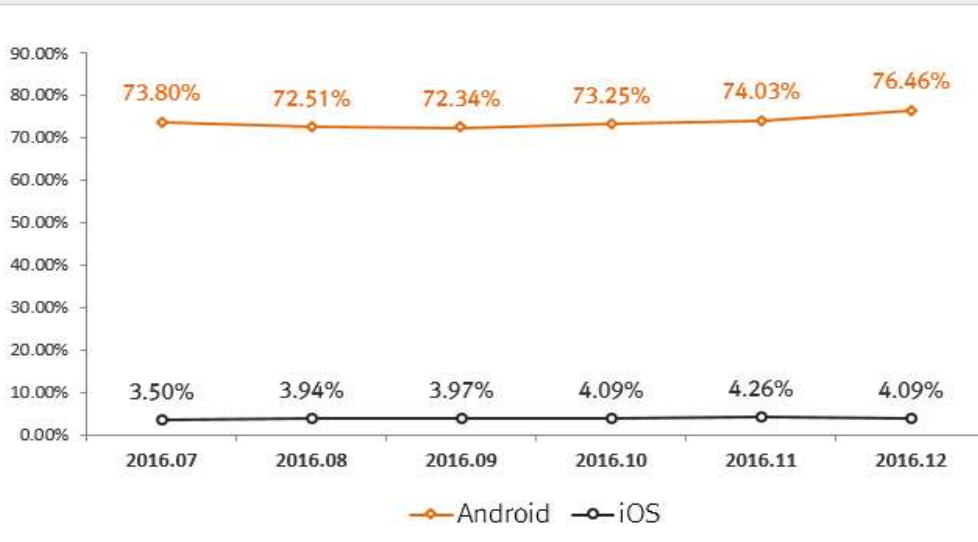
Indonesia Finance Today의 보고에 의하면 Microsoft의 Window 8 역시 현지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며 2013년 1월 기준 약 500여개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구글 Android 운영체제,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태블릿PC OS 장악

StatCounter Global Stats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인도네시아 스마트폰의 Android 운영체제 점유율은 각각 77.10%와 78.10%를 기록함. Android 운영체제가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OS시장을 독점하고 있음. BlackBerry OS, Series 40, iOS 등 다양한 OS를 사용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임

구글은 2014년 저가 스마트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원(Android One)을 출시함. 이후 개발도상국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한 자사 운영체제의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함

그림 2.2 :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출처 : StatCounter Global Stats

2. 인터넷서비스

1) 시장 동향 및 전망

검색 및 포털 서비스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등 글로벌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포털 사이트인 detik.com도 상위권에 포함됨

표 2.1 : 인도네시아 TOP 10 웹사이트

순위	사업자명	웹사이트
1	Google	Google.com
2	Google.co.id	www.google.co.id
3	Youtube.com	www.youtube.com
4	Tribunnews.com	www.tribunnews.com
5	Detik.com	www.detik.com
6	Blogspot.co.id	www.blogspot.co.id
7	Yahoo.com	www.yahoo.com
8	Facebook.com	www.facebook.com
9	Tokopedia.com	www.tokopedia.com
10	Liputan6.com	www.liputan6.com

출처 : Alexa, Top Sites in Indonesia(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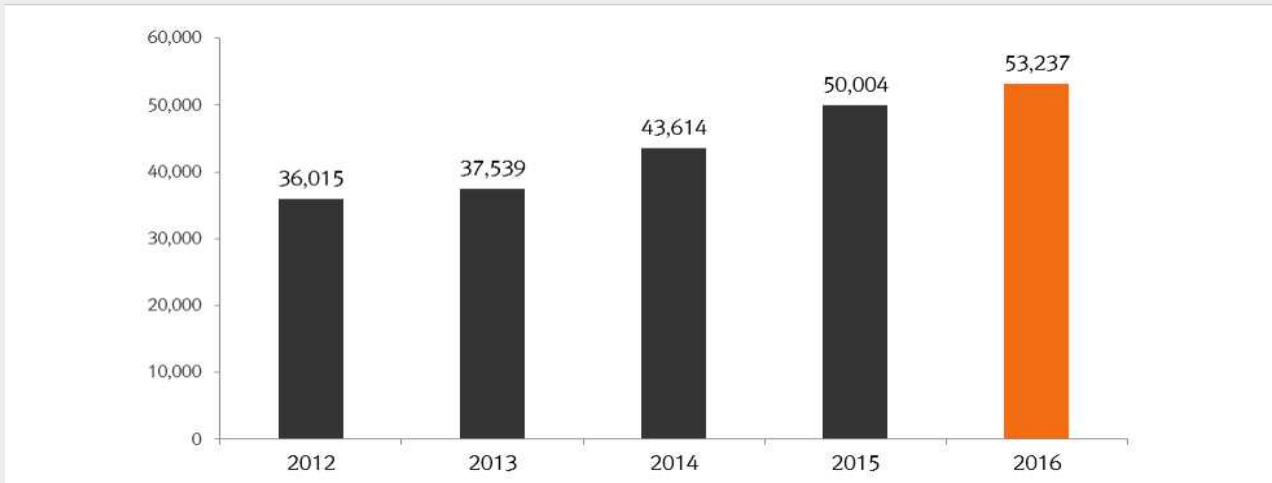
인터넷 이용자 수

Internet Live Stats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인터넷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음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수는 2012년 약 3,601만 명에서 2015년 약 5,000만 명으로 연평균 11%이상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6년 약 5,3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3 :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천 명)



출처 : Internet Live Stats(2016)

2) 주요 기업 현황

아마존·알리바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IT 전문매체 Tech In Asia는 최근 거대 전자상거래 공룡인 아마존(Amazon)과 알리바바(Alibaba)의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 될 것이라 전망함

알리바바는 지난해 동남아시아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라자다(Lazada)의 지분 51%를 매입하여 몸집을 키웠으며 아마존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6억 달러를 투자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 양사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감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을 두고 경쟁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SNS시장 점유율 1위 기록

eMarket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도네시아의 SNS 이용자 수는 7,230만 명에서 2017년 9,2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인도네시아 SNS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9년 1억 98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SNS 중 페이스북은 인도네시아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해당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2015년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6,77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 8,780만 명까지 늘어나 전체 SNS 시장의 95.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페이스북이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끈 요인은 유행을 따르려는 젊은 층의 성향과 과시욕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인도네시아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ITNEWS에 따르면 모바일메신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가 개발한 와츠앱(WhatsApp)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한국의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LINE)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헤어질 때마다 “라인에서 만나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음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이용자 수 증가 추이
(단위: 백만 명)

구분	페이스북 이용자 수	전체 이용자 수	전체 대비 이용률
2014	58.5	64.5	90.7%
2015	67.7	72.3	93.6%
2016	77.7	82.0	94.8%
2017	87.8	92.1	95.3%
2018	96.3	100.8	95.5%
2019	105.1	109.8	95.7%

출처 : eMarketer, Nov 2015
※ 2016 ~ 2019년도는 전망치임

표 2.2 : 인도네시아 주요 SNS 및 서비스 내용

순위	기업	SNS	이용자 수	서비스 내용
1		Facebook	약 7,800 만 명	- 약 15억 명 이상의 월 활동 사용자 보유 세계 최대의 SNS 서비스 중 하나 - 전체 인터넷 이용 인구 대비 약 75% 이용률 기록
2		Instagram	약 2,800 만 명	- 20-25세 이용자 수가 전체 이용자 수의 약 74% 차지 - 약 53%의 이용자가 온라인 쇼핑정보 검색을 위해 이용
3		Twitter	약 1,700 만 명	- 2015년 자카르타 지사 개소 및 기업 광고 서비스 개시 - 2016년, 전년 대비 약 17%의 가파른 성장세 예상

출처 : 각 기업 홈페이지, eMarketer(Nov 2015)

3. 통신

1) 시장 동향 및 전망

이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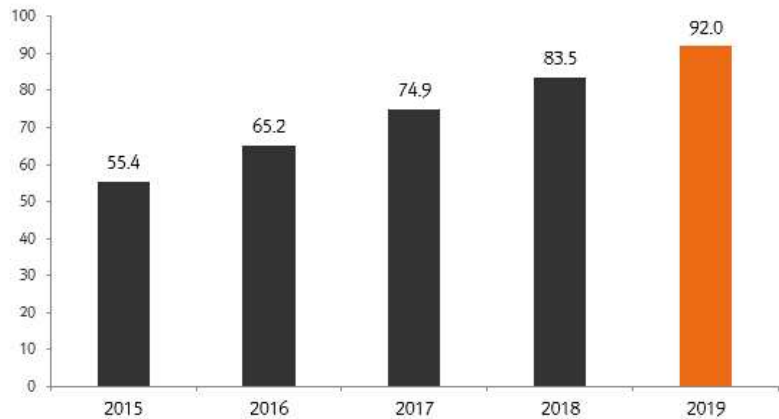
World Bank에 따르면 2015년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3억 3,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으며 보급률이 132.32%에 도달함

eMarketer에 따르면 2015년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5,18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약 15.3%를 차지함. 2016년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7.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6,5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9,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개최를 앞두고 2G에서 4G로 이동통신 전환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어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4 :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이용자 수

(단위: 백만 명)



※ 2016 ~ 2019년도는 전망치임

출처 : eMarketer

브로드밴드

BMI에 따르면 2015년 4/4분기 기준,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는 2013년도 521만 회선에서 2015년에는 761만 5,000회선으로 약 20.9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브로드밴드 주요 사업자로는 3개 사업자로 국영 통신 사업자 Telkom의 브로드밴드 자회사 PT Indonusa Telemedia, Indosat 브로드밴드 자회사 IM2, XL Axiata가 있음

Telkom은 자회사 PT Indonusa Telemedia를 통해 다이얼업 서비스 ‘TelkomNet Instant’와 브로드밴드 서비스 ‘TelkomSpeedy’를 제공함

Indosat은 자회사 IM2를 통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intasarta를 통해 IP Virtual Private Network(VPN), 고속 임대회선, Frame Relay,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 위성 서비스 등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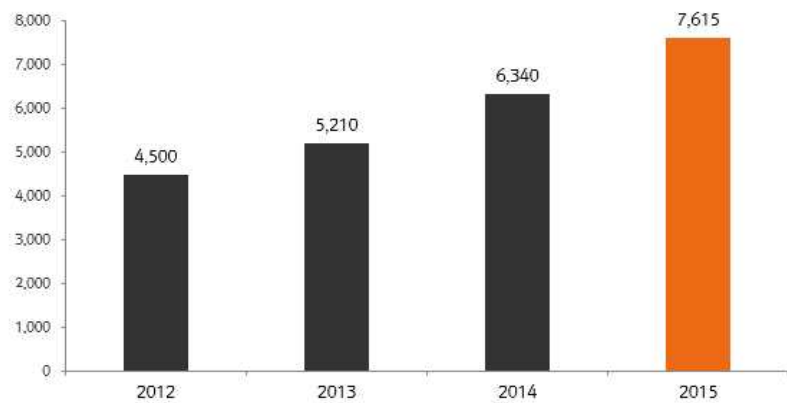
XL Axiata는 HSDPA 기반의 ‘Hot Rod 3G+’ 서비스를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덴파사르 등에서 제공함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주요 사업자들의 기지국 확대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가입회선 수와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브로드밴드 시장이 확대되면 네트워크 수요 확대로 이어져 해외 통신 장비사업자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임

그림 2.5 : 인도네시아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단위: 천 회선)



출처 : BMI, Indonesia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2015.4Q)

5G

인도네시아는 2015년에 5G Forum of Indonesia를 구성하여 일본 등과 서비스 연구와 기술검토, 주파수 연구, 국제협력 등의 협력 작업을 개시함

2018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앞두고 5G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과 함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음

2) 주요 기업 현황

인도네시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Telkom Indonesia와 XL Axiata, PT Indosat Tbk 등이 있음. 2014년 Telkom Indonesia이 매출액 89조 6,960억 루피아(약 67억 2,049만 달러)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으며 PT Indosat Tbk와 XL Axiata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2.3 : 인도네시아 통신산업 주요 사업자 정보

구분	Telkom Indonesia	PT Indosat Tbk	XL Axiata
로고			
설립시기	1991년	1967년	1996년
가입자 수 (2014년 기준)	1억 4,058명	6,320만 명	6,500만 명
매출액 (2014년 기준)	89조 6,960억 루피아 (약 67억 2,049만 달러)	24조 850억 루피아 (약 18억 457만 달러)	23조 5,690억 루피아 (약 17억 6,591억달러)
주요 계열사	- PT Telekomunikasi Selular, Telkomsel - PT Infomedia Nusantara, Infomedia	- PT Indosat Mega Media - PT Starone Mitra Telekomunikasi	-
사업분야	- 개인 및 기업용 유선통신 - 이동통신 - 인터넷·브로드밴드 - 유료 TV 서비스	- 유선통신 - 이동통신 -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 인터넷	- 이동통신 -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서비스	2014년 12월부터 4G LTE 서비스를 900MHz 대역에서 개시함. 2015년 7월에는 1,800MHz 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4G LTE 확대를 위해 2015년에 9억 9,33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LTE 시장의 5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 12월 ‘Super 4G-LTE’로 명명한 LTE 서비스를 개시함. 인프라 보완을 위해 2015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2년에 걸쳐 기존 BTS를 4G LTE 제공이 가능하게 업그레이드할 예정임	2015년 7월, XL Axiata는 1,800MHz에서 LTE 서비스를 개시함. 2017년까지 전체 고객의 25%를 4G LTE 가입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브로드밴드	Telkom은 자회사 PT Indonusa Telemedia를 통해 다이얼 업 인터넷 서비스 ‘TelkomNet Instant’와 브로드밴드 서비스 ‘Telkom Speedy’를 제공함	-	HSDPA 기술을 기반으로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덴파사르의 3G 데이터 유저들이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상향 3.6Mbps 속도인 ‘Hot Rod 3G+’ 상품을 출시

출처 : 각 기업 홈페이지

4. 디지털콘텐츠

1) 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본격 진출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Pw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음악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디지털음악 시장은 3,900만 달러를 기록해 약 26%의 점유율을 기록함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글로벌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가 잇따라 진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들도 서비스 보강에 나서 디지털 음악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 시장 대폭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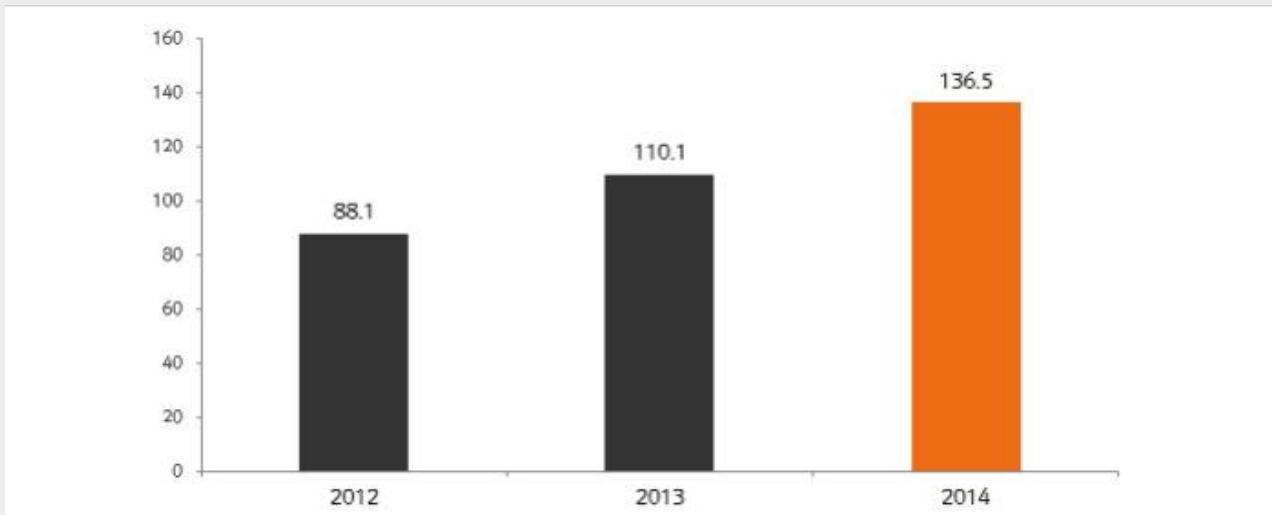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 시장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1억 3,65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2017년까지 매년 17%~21% 상승 성장세가 기대됨

온라인 게임은 Warnet이라는 PC방을 통해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자카르타, 메단, 수라바야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Warnet이 형성되어 있음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나,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자결제 업체들에게는 주요 온라인 포털 사업자와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2.6 :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추산

(단위: 백만 달러)



출처 : Statista

2) 주요 기업 현황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스트리밍 업체는 스포티파이(Spotify), 옴더 뮤직(Yonder Music), 구베라(Guvera) 등이 있으며, 국내 업체는 멜론(Melon)이 진출해있는 것으로 파악됨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업체, 현지 통신사와 파트너십 체결

세계 1위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안정적인 인도네시아 진출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통신사 Indosat Ooredoo와 파트너십을 맺어 기존 가입자들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도하는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함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옴더뮤직도 2016년 인도네시아 거대통신업체인 XL AXIATA와 협력하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의 멜론도 인도네시아 현지 최대 이동통신사인 PT Telkom Indonesia와 조인트벤처 Melon Indonesia를 설립,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16년 10월 기준, PT Telkom Indonesia는 멜론의 지분을 100%로 인수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디지털 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을 나타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의 안정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통신사와의 파트너십 체결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표 2.4 : 인도네시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주요 사업자

기업명	본사	개요
 Spotify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만 곡의 음원을 보유한 세계1위 음악 스트리밍 업체 - 3,000만 명 규모의 유료가입자 보유 - 2016년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작
 Yonder Music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통신업체인 XL AXIATA와 협력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 2016년 5월 정식 서비스 개시
 Guvera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8월 인도네시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 호주 국내시장 서비스 종료하고 인도네시아 등 신흥 국가에 역량 집중
 Deezer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에 진출 -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진행
 멜론 (MelOn)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플래닛, 현지 이동통신사 PT Telkom Indonesia와 조인트벤처 Melon Indonesia 설립 - PT Telkom Indonesia, Melon Indonesia 인수(지분 100%)

출처 : 각 기업 홈페이지

5. 방송스마트미디어

1) 시장 동향 및 전망

방송콘텐츠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T)는 각 지역별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확대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 중계망을 이용한 방송사 본사 프로그램의 재송신 편성비율을 90%로 제한함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방송사는 크게 TVRI와 Indosiar가 있음.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공영방송사인 TVRI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 50%, 뉴스 및 교육 프로그램 각각 20%, 종교 프로그램 10%의 비중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함

반면, 인도네시아 재벌 기업 Salim 소유의 민영방송사인 Indosiar는 해외 콘텐츠 편성 비중이 높은 편임.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연평균 약 10편의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여 방영함.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가 해외 방송 콘텐츠를 수입할 경우, 인도네시아 영화검열위원회(LSF)에 수입 허가 및 검열을 받고 등급을 부여받아야 방영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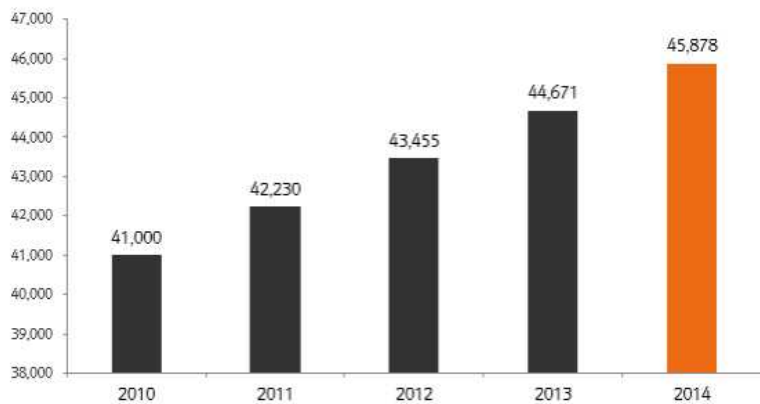
2010년 발효된 디지털 전환법에 의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함. 2018년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을 목표로 함

방송

Digital TV Household Databook 2015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TV 보유가구 수는 4,587만 8,000가구임

그림 2.7 : 인도네시아 TV 보유가구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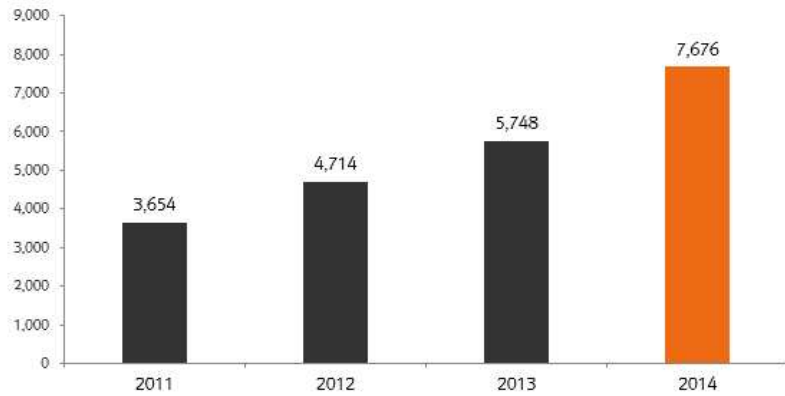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출처 : Digital TV Household Databook(2015)

2014년 유료 TV 가입자는 491만 명으로 전년 342만 명에서 43% 증가하였음. 디지털 TV 가입자 수는 767만 6,000명으로 2013년 대비 574만 8,000명에서 약 33.6% 증가함

그림 2.8 : 인도네시아 디지털 TV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출처 : Digital TV Household Databook(2015)

인도네시아 지상파 TV 사업자로는 공영방송인 TVRI와 민영방송사 RCTI, SCTV, Indosiar, ANTV, Metro TV, Global TV, TVOne, Trans TV, Trans 7, MNCTV 등이 있음. 시청 점유율은 민영방송사가 99.5%로 공영방송사인 TVRI의 0.5%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

케이블 TV 사업자로는 PT First Media Tbk의 HomeCable과 Telkom의 자회사인 TelkomVision, IndosatM2 등이 있음

HomeCable은 1999년 인도네시아 최초 케이블 TV 사업자 KableVision이며, 2007년 7월 Lippo Group의 자회사인 First Media와 합병하여 서비스명을 HomeCable로 변경함

HomeCable Analogue와 'HomeCable Digital'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9월부터 HD 방송을 제공하기 시작함

HomeCable Analogue는 BBC World, CNN, CCTV, NHK 등 88개의 채널을 아날로그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HomeCable Digital은 177여 개의 채널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음

TelkomVision은 1999년 12월부터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세미랑, 덴파사르 지역에서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위성 방송사로는 위성 TV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Indovision과 First Media, AstroAll Asia Networks plc의 조인트벤처 방송사인 Aora Nusantara TV, TelkomVision이 있음

Indovision은 Global Mediacom 소유의 Sky Vision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유료 TV 사업자로 1994년 서비스를 개시함

Aora Nusantara TV는 2008년 8월 10개의 채널로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 2008년 올림픽 독점 방영권을 획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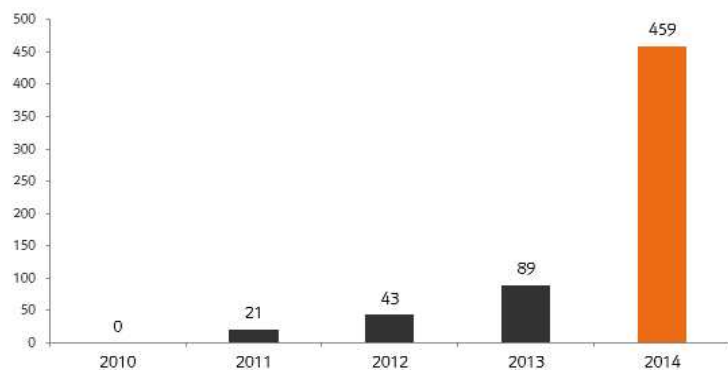
TelkomVision은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 Telkom의 자회사인 Indonusa Telemedia가 운영하는 위성 TV 사업자로서 2007년 7월 설립됨

방송통신융합

인도네시아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최대 통신 사업자 Telkom의 자회사인 Telkom Vision이 유일하며 2011년부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함

2014년 IPTV 가입자는 약 46만 가구로 추산되며 전년 8만 9,000 가구 대비 약 415%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함

그림 2.9 : 인도네시아 IPTV 보유가구 수 추이 (단위: 천 가구)



출처 : Digital TV Household Databook(2015)

인도네시아 주요 OTT 서비스 제공 업체

구분	사업자명	본사
1	Netflix	미국
2	iflix	말레이시아
3	HOOQ	싱가포르
4	CatchPlay	대만
5	Trib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폭력성과 선정성을 이유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Netflix)의 접속을 차단함. 이어 글로벌 동영상 공유 플랫폼 비메오(Vimeo), 텀블러(Tumblr) 등도 접속을 차단하는 등 엄격한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 OTT(Over The Top)업체들의 서비스결제 통화를 루피아로 지정하고 국내 사업장을 두도록 하는 등 감시와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기업 현황

인도네시아 방송 플랫폼은 크게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로 구분되며, 각 플랫폼별 주요 사업자는 하기와 같음

지상파의 경우, 공영 방송사인 TVRI를 비롯해 RCTI, SCTV가 대표적임. 인도네시아 방송 시장 대부분의 시청 점유율은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민영 방송사가 차지하고 있음

표 2.5 : 인도네시아 방송 플랫폼별 주요 사업자

구분	주요 사업자
지상파 TV	TVRI(공영), RCTI, SCTV, Indosiar, ANTV, Metro TV, Global TV, TVOne, Trans TV, Trans 7, MNCTV
위성 TV	Indovision, First Media, Aora Nusantara TV, TelkomVision
케이블 TV	HomeCable, TelkomVision, IndosatM2

인도네시아 국영방송 TVRI, 디지털 전환 추진 본격화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인 TVRI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사업을 진행 할 예정임. 이를 따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이행전략 수립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디지털전환 교육훈련센터를 구축 할 예정임

넷플릭스-아이플릭스, 글로벌 OTT 업체의 엇갈린 행보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인도네시아에 진출함.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영 이동통신사업자인 텔콤은 넷플릭스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함

텔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콘텐츠의 선정성 및 폭력성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표면적인 것으로 넷플릭스가 텔콤과 어떠한 파트너 제휴를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텔콤은 이동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반면 호주에 기반을 둔 인터넷 TV 서비스 제공 업체인 아이플릭스(iFlix)는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사업자인 Indosat과 제휴를 맺어 아이플릭스의 콘텐츠를 Indosat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함. 또한, 아이플릭스는 넷플릭스를 차단한 텔콤과 파트너십 체결에 성공하여 인도네시아 OTT 시장의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6. 정보보호

1) 시장 동향 및 전망

인도네시아, 사이버 공격 증가로 정보보안 관심 증대

인도네시아의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주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비해 협소한 편임. 매년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공동협력 구축과 사이버 보안 전문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2015년 OpenGov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약 39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으며, 이는 일평균 150만 건에 이르는 수치임

2013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해커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 Special Force라 불리는 사이버 군대를 창설함. 또한 정부는 2015년 국가사이버보안진흥원(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을 창설한다고 발표함

국가사이버보안진흥원의 주요 역할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사이버 공격 시 긴급전략을 추진하며 사이버 위협 및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임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NEC와 동남아 국가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체결함

NEC는 인도네시아 정부 및 부처의 사이버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이버 운영 센터(Security Operation Centre, SOC)를 디자인하기 위해 국가사이버보안진흥원과 협력할 것이라 밝힘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사이버 보안의 기술력을 도입하기 위해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 구축 방안의 노력들을 할 것으로 전망됨

2) 주요 기업 활동 현황

인도네시아 정보보호 시장에 진출한 업체는 미국의 IBM, 포티넷(Fortinet)과 일본 NEC,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 등 글로벌 업체 중심인 것으로 파악됨

Trend Micro, 인도네시아 정보보안 시장 진출 본격화

글로벌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는 2011년 자카르타에 지사를 설립하여 네트워크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정보보안 시장에 진출하였음

트렌드 마이크로는 2016년 1/4분기 순 매출액은 299억 엔(약 2억 6,860만 달러)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10%에 해당하는 약 30억 엔(2,700만 달러)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것임

트렌드 마이크로는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130~140%로 예측하며 인도네시아 역시 'Strategic revenue maker'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2015년 7명이던 기술지원팀 직원이 2016년 기준 1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보보안시장의 잠재성을 겨냥한 투자확대 등 전략적 집중을 할 전망이다

표 2.6 : 인도네시아 주요 정보보안 업체 정보

기업명	본사	개요
Trend Micro 	일본	- 인도네시아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텔콤과 모바일 인터넷 보안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 체결 - 차세대 유망 기술분야인 클라우드 보안, 모바일보안, IoT 기술 시장 진출
IBM 	미국	- 전세계 보안시장 3위 업체 - 보안 컨설팅 서비스, 세부 분야 보안 등 종합 솔루션 제공
Check Point 	이스라엘	- 세계 최고의 방화벽 솔루션 보유 - 연간 1.2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진행
Fortinet 	미국	- 통합위험관리(UMT) 시스템분야 세계1위 업체 - 인도네시아 현지 리셀러를 통한 제품공급 전략 수행
NEC 	일본	- 일본의 대표적 전자기기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 - 동남아 국가들과 사이버 보안 능력 개발을 위한 협력 체결

출처 : 각 기업 홈페이지

7. 클라우드 컴퓨팅

1) 시장 동향 및 전망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16조 루피아 규모 전망

BMI에 의하면, 2013년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3조 8,000억 루피아 (약 2억 8500만 달러)에서 2018년까지 16조 루피아(약 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시장 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부족한 IT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IaaS 분야에 주목하고 있음

IaaS 시장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클라우드 시장 내에서도 중소·중견기업(종업원 1~250명)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은 440만 개 정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에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음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용 (SME) 클라우드 시장은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인프라 클라우드가 5억 달러, 웹 현실화 1억 3,000만 달러, 통신 서비스 3억 2,000만 달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약 3억 달러임.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광통신망 연결사업 등에 의해 현지 인터넷 환경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며, 부족한 IT 역량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려는 인도네시아 기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7 :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분야별 성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기업명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웹애플리케이션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종합
2015년	496	128	324	289	1,237
2018년	956	322	597	847	2,711
2015~2018 성장률	92.7	151.6	84.3	193.1	120.0

출처 :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2) 주요 기업 활동 현황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등의 글로벌 IT기업들과 텔콤(Telkom), 인도삿(Indosat)등의 인도네시아 현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분야에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한 선거예측 서비스 제공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2월 자카르타 특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PT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팀과 협력하여 개발한 MataRakyat(Eye of the People)이라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공개함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실시간 투표수 현황 및 신속한 출구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임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사업자-IT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본격화

인도네시아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콤은 2011년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을 향후 자사의 4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음

2012년 5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함. 2014년 1월에는 호주 이동통신 사업자인 Telstra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협력을 위해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함

XL Axiata는 글로벌 IT 업체인 화웨이(Huawei)를 비롯한 6개 IT 사업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 퍼블릭 클라우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개발에 돌입함

인도삿은 사업자들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를 위해 IT 사업자인 Dimension Data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2013년 말 새로운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함

8. 사물인터넷

1) 시장 동향 및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 사물인터넷(IoT) 구축 적극 지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IoT 스마트시티 구축, ICT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기상청 등 주요 국가기관들은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사물 통신 서비스 제공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민간에서는 XL Axiata, Indosat 등의 주요 통신 사업자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2015년에 국영 통신 사업자 텔콤은 M2M 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을 확대 중임. 2015년 11월 기준 인도네시아 주요 통신 사업자인 XL Axiata와 인도샷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중임

인도샷은 2015년 3월 글로벌 IT 업체인 에릭슨(Ericsson)과 M2M 사업을 개시, Ericsson의 디바이스 연동 플랫폼을 통해 자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텔콤은 2015년 6월 화웨이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합의함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 사업자들이 해외 기업들과 기술 제휴에 나서고 있음. 국내 사업자들도 인도네시아 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내 사업자 중 SK텔레콤은 이란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및 솔루션 등의 제품으로 현지 시장 개척에 나섰으며 국내 기업 팬택도 인도네시아 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함

팬택은 지난 1월 12일 인도네시아에서 사물인터넷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IoT기기 완제품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팬택은 2017년 이후엔 인도네시아 내 합작법인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다각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IoT 아이টে을 지속 발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2) 주요 기업 활동 현황

텔콤-SK텔레콤 IoT 기반 사업 협력 MOU 체결

2016년 5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영 통신사 텔콤은 SK텔레콤과 IoT 기반 사업 및 신규 성장 사업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IoT 융합 서비스, 스마트시티,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인도샷, 해외기업들과 기술제휴를 통한 IoT시장 진출 본격화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사업자 인도샷은 2016년 11월 글로벌 IT기업 IBM과 IoT 플랫폼 NEXThing Ooredoo의 공동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함. 양사는 공동 개발한 IoT 플랫폼을 통해 상업, 물류, 금융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에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임

인도샷은 이번 IoT플랫폼 개발을 통해 기업 고객들의 운영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샷은 위성 서비스 운영 업체인 Thuraya Telecommunications와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인도샷은 Thuraya의 위성 기술과 자사의 기술을 결합해 지상 도달 범위를 넘어선 통신 서비스를 개발 할 예정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기업운영, 자원 개발, 안보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IoT시장에 대한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예정임

XL Axiata, IoT서비스 개발 챌린지 개최

2016년 4월,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사업자 XL Axiata는 스마트홈, 모바일/웹 솔루션의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IoT 서비스 개발 챌린지를 개최함

XL Axiata는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정부기관 BEKRAF 및 2만 명 이상의 개발자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Dicoding과 제휴를 통한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9. IT스마트융합

1) 시장 동향 및 전망

인도네시아,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 대두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성장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 및 도시 문제들이 심화,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는 매일 버려지는 대량의 쓰레기, 대중교통의 부재로 인한 교통 체증 및 교통 통제 등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 공무원 사이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제 발전을 위한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스마트 시티의 일례로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최근 3 종류의 행정 서비스가 모두 온라인화 되는 등 주 정부가 對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온라인화된 행정 서비스 중 하나는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에는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샘셋(Samsat)으로 불리우는 경찰의 전용 창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최근에는 세금을 은행의 ATM에서 수납할 수 있게 됨

또한 출생 신고도 전자화 되어 출산 직후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현재는 북 자카르타의 코자 병원만 실시되고 있지만, 향후 많은 병원에 보급될 예정임. 또한 코타 지역의 미술관에서는 은행 카드로 입장 할 수 있는 e-티켓 제도를 도입함

또 다른 스마트 시티의 예시로, 수라바야의 시장 트리 리스마하리니(Tri Rismaharini)는 'E-Government(전자 정부)'를 시행함

E-Government 서비스에는 tax, e-budgeting, e-project, e-procurement, e-payment 등이 포함되는 등, 수라바야 시는 정부 부처 운영 및 공공 서비스에 온라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 시티를 실천해가고 있음

e-kiosk를 통해 시민들은 온라인 시스템이 내장된 기계를 통해 보건 서비스 등록, 주민등록 및 사망 증명서 발급 등 여러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교육부문에서는 e-education이라고 명명된 온라인 시스템을 시행 중임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수월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게 만들어 수라바야 시의 관료제도 정비에 일조함으로써 수라바야 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그림 2.10 :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추진 도식도



출처: SINDONEWS(2016)

인도네시아 인공지능 산업 비관적 전망

인도네시아 국민의 낮은 재정적 수준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 비서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인 YesBoss와 Bemalas는 최근 서비스를 중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 추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2) 주요 기업 활동 현황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사업자-주(州)정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텔콤은 2015년 3월 자카르타, 발리, 반둥에 이어 인도네시아 제2의 대도시인 동부자바 지역의 수라바야 시에 4G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시함

4G와 같이 광섬유 통신망을 통한 빠른 속도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접근이 용이해짐. 또한, 국정, 교통 통제, 범죄 예방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4G LTE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동부자바의 인프라 시설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텔콤과 두마이시(市) 주정부는 2017년 1월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MOU를 체결함. 앞으로 양측은 전자조세시스템, 보건서비스, 정부행정, 각종 민원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그림 2.11 : 두마이시(市)-텔콤 스마트시티 구축 업무협약 체결(2017. 01)



출처: Riauterkini.com

또다른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사업자인 인도샷도 2016년 페킨baru, 프로볼링고, 수카부미시(市) 등 지방정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Sinar Mas Land-화웨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2016년 5월 인도네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Sinar Mas Land는 인도네시아 대규모 개발단지 BSD(Bumi Serpong Damai) City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웨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

Sinar Mas Land는 이번 인프라 구축을 통해 e-wallet, 실시간 교통정보, 전자결제시스템 등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입주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임

10. 전파위성

1) 시장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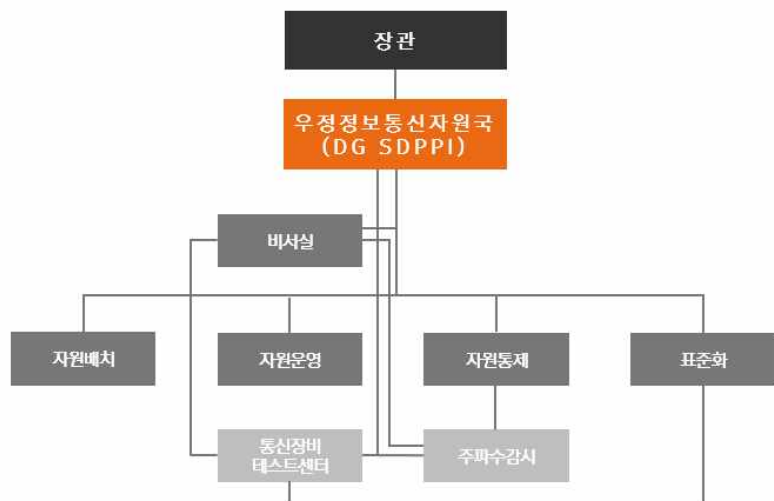
우정정보통신자원국(DIREKTORAT JENDERAL Sumber Daya dan Perangkat Pos dan Informatika, DG SDPPI)

인도네시아의 전파관리는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 산하의 우정정보통신자원국이 담당함

2011년 1월, 주파수 할당과 관리 업무를 우편통신국(DGPT)에서 우정정보통신자원국(DGSDPPI)으로 이관함. 1997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97 세계 무선통신법(Final of Act World of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1997)’에 근거하여 주파수를 할당함

부서별로 나누어 주파수 계획, 주파수 관리, 주파수 운영, 주파수 기술 장비, 주파수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별로 모니터링 사무소를 설치하여 주파수의 이용 감시와 통제를 담당함

그림 2.12 : 인도네시아 우정정보통신자원국(DG SDPPI) 조직도



출처: 우정정보통신자원국(DG SDPPI)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통신망 주파수 재조정 역할 담당

2013~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800MHz, 1,800MHz의 2G 스펙트럼 주파수 재조정을 시작하였으며, 통신사들은 900MHz, 1,800MHz 대역 에서 4G LTE 서비스를 개시함

정보통신부에서는 1,800MHz 주파수를 재통합하는 업자들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으며, 1,800MHz 주파수 재통합 후에 2,100-MHz, 2,300-MHz도 이행 될 예정임

2) 주요 기업 현황

유선 인터넷 사용이 전체 인구 중 30%에 불과했던 인도네시아가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며 현재 75%를 차지하고 있는 2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8년까지 4G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임

4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설비 투자가 필요함.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가입자의 40% 이상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업자 텔콤은 자금력을 무기로 투자를 서두르고 있음

텔콤은 국토가 넓고 섬이 많아 통신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효율적으로 4G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텔콤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4,500개의 전파기지국을 정비하여 100개 도시에서 4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텔콤, 위성LTE 서비스를 위한 통신위성 발사 계획

텔콤은 2018년 6월을 목표로 새로운 통신위성 Telkom-4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텔콤은 이번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특히 섬 지역과 산간 오지의 4G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알려짐

텔콤은 4G 인프라 구축이 힘든 도서산간 지역에 Telkom-4의 위성망을 이용해 통신할 수 있는 위성 LTE 기술을 도입할 예정임. 텔콤은 위성 LTE 기술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안정적인 4G 서비스 공급을 추진할 예정임

텔콤의 위성LTE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프라 부족으로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던 약 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임

11. 디바이스

1) 시장 동향 및 전망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최근 내수 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IT기기 시장은 높은 소비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스마트폰 판매는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대비 약 30% 성장한 연간 3,100만 대 가량이 판매됨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46.7%를 기록함. 이는 전년대비 약 11%증가한 수치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의 구매 및 활용은 젊은 중상류층에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저소득층까지 확산되고 있음. 피쳐폰은 스마트폰의 성장에 따라 판매가 급속도로 하락, 2015년 전년대비 -35% 성장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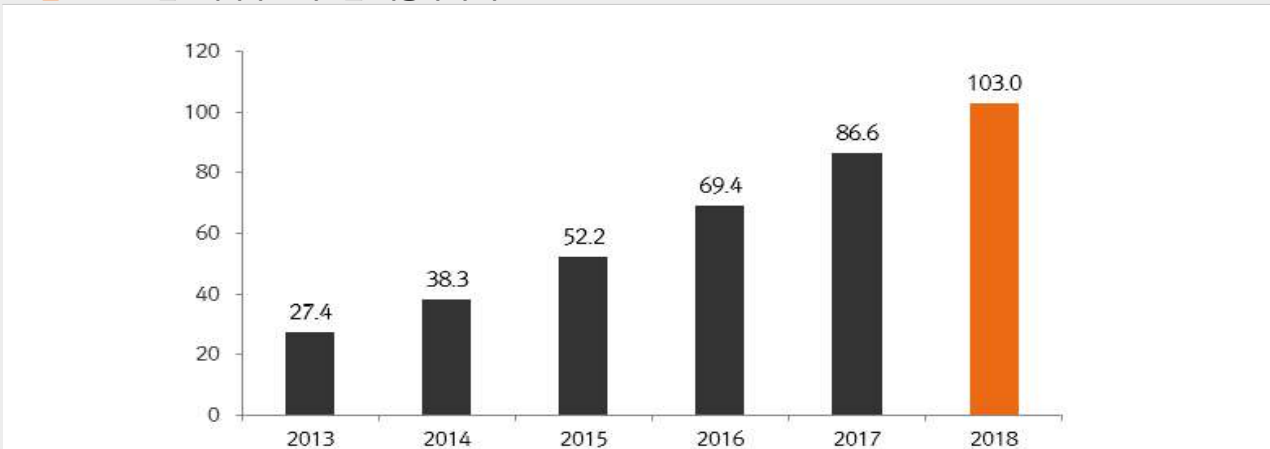
표 2.8 : 모바일폰 유형별 판매량 (단위: 천 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피쳐폰	24,500	31,000	34,080	33,159	25,035	16,273
스마트폰	4,500	9,180	13,920	19,733	23,679	30,783
합계	29,000	40,180	48,000	52,892	48,714	47,056

출처 : 유로모니터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식음료 및 담배, 기계부품 등 다른 소매 제품의 판매 부진과 대비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중상류층의 소득 증가, 저소득층의 스마트폰 구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그림 2.13 :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사용자 추이 (단위: 백만 명)



출처 : eMarketer

2) 주요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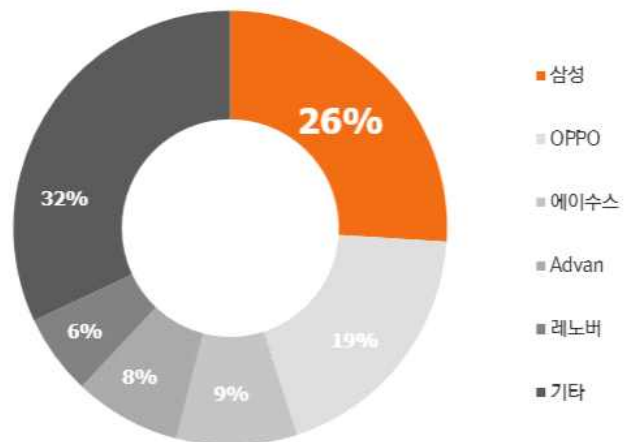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은 아세안(ASEAN)지역에서 저가 보급형 단말기인 갤럭시 J 시리즈 공급을 통해 판매량을 확대함. 삼성은 저가 보급형 단말기 판매 전략 성공에 힘입어 2016년 2/4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26%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함

OPPO는 인도네시아 현지 유명인들을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점유율을 확대함. OPPO는 2016년 2/4분기 1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함

2015년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대만 업체 에이수스(ASUS)의 상승이 두드러짐. 에이수스는 2015년 3분기에 출시한 신제품 ‘ZenFone’가 큰 인기를 누린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9%를 기록해 3위를 차지함

그림 2.14 : 2016년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출처 : IDC Asia/Pacific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2016Q2

한편, 삼성과 더불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Apple)의 아이폰은 순위에 들지 못함. 상대적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만 판매하는 이유로 파악됨. 인도네시아는 150달러 미만의 저가폰이 주로 판매되며 저가폰 비중은 약 78%에 달함

III. 인도네시아 유망제품 진출전략

1. 유망품목 도출
2. 유망제품 선정
3. 유망제품 유통구조
4. 현지 진출 기업 사례
5. 유망제품 홍보 방법



Overview

※ 유망품목 도출

유망품목 선정 - '인터넷서비스'

- 선정 사유 1.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증가
 - Palapa Ring 프로젝트에 힘입어 2020년까지 1,145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 선정 사유 2.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 2016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는 5,323만 7,000명에 이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현재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 선정 사유 3. SNS를 통한 온라인 쇼핑 증가 전망
 - 젊은 층 사이에서 SNS를 통해 온라인 쇼핑하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잡음.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이용자는 2019년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임

※ 유망제품 선정

- 모바일 결제 솔루션
 - 서버형 결제보다 NFCm 모바일 지갑 등 근거리 통신 결제가 유리함
- 결제 보안 솔루션
 - 카드 및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해당 솔루션 수요 증가
- 바이오인식 솔루션
 - 지문, 홍채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증방식보다 보안 수준이 강화됨

※ 유망제품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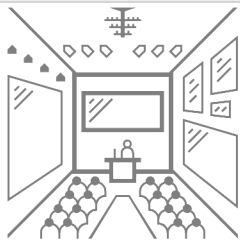
※ 현지 진출 기업 사례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결제 솔루션 개발업체 SI 업체 VAD 업체

- 결제 및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전문 유통 업체를 통한 판매 가능
- 최종 수요처: 정부기관, 대기업, 일반 소비자 등

- NICE정보통신, 'NICEPay' 출시
- 코발트레이, 인도네시아 결제 시장 진출
- 비씨카드-만디리은행, 합작사 설립 계약 체결

※ 유망제품 홍보 방법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전시회 참가



- EcommerceMagz와 같은 전문 매거진을 활용한 홍보활동 진행

1. 유망품목 도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 전망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및 SNS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음.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6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 알리바바 역시 라자다 지분 51%를 매입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선정 사유 1.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증가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약 115억 달러임. 해당 시장은 2020년까지 1,14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3위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걸쳐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자바 섬과 그 외 지역의 온라인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선정 사유 2.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증가

2012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601만 5,000명이었음. 그러나 2016년까지 연평균 10.3%씩 성장하여 2016년 기준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는 5,323만 7,000명까지 증가함.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향후 인터넷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선정 사유 3. SNS를 통한 온라인 쇼핑 증가 전망

eMarketer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인도네시아의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6,770만 명임. 전체 SNS 시장의 93.6%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SNS 중 하나임. 2019년 인도네시아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1억 5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SNS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아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해나갈 것으로 파악됨

전자상거래 유망품목 선정 이유

1.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증가
Palapa Ring 프로젝트에 힘입어 2020년까지 1,145억 달러까지 증가 전망
2.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2016년 5,323만 7,000명까지 증가
3. SNS를 통한 온라인 쇼핑 증가 전망
젊은 층 사이에서 SNS를 통해 온라인 쇼핑하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잡음.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이용자는 2019년 1억 명을 넘을 전망이다

그림 3.1 : 페이스북 내 온라인 쇼핑



출처 : Adquadrant.com

2. 유망제품 선정

모바일 결제 솔루션

- ① 미국 및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업체가 결제 플랫폼을 제공함
- ②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신용카드보다 현금 혹은 은행 이체를 주로 사용하므로 서버형 결제보다 모바일 지갑, NFC 근거리 종류가 더 나옴



[모바일 결제 솔루션]

- 현지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
- 현지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
- 현지 진출 경쟁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낮은 제품

결제 보안 솔루션

- ① 카드 및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 ② 가상 번호 생성 등 모바일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③ 전자상거래 이용 급증과 함께 해당 솔루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결제 보안 솔루션]

- 현지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
- 현지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
- 현지 진출 경쟁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낮은 제품

바이오인식 솔루션

- ① 지문, 홍채 인식 등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인증 방식임
- ② 해당 기술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미국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음



[바이오인식 솔루션]

- 현지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
- 현지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
- 현지 진출 경쟁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낮은 제품

3. 유망제품 유통구조

인도네시아 결제 솔루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솔루션 개발업체와 현지 전문 수입·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결제 솔루션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현지 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여 기술협력 등의 방식을 통해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의 정보력이 약하거나 수출 경험이 전무한 기업의 경우 현지 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지 전문 수입·유통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는 방식이 존재함. 해당 방법은 현지 SI업체 또는 VAD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어 해당 업체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도록 일임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솔루션의 A/S 및 교육 등 지원 정책이 파트너 계약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함

결제 솔루션의 최종 수요처로는 정부기관 및 대기업, 일반 소비자가 있음.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모바일 결제 플랫폼, 보안 솔루션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임. 특히, 일반 소비자는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해당 솔루션에 관심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파악됨

그림 3.2 : 인도네시아 결제 솔루션 유통 구조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결제 솔루션
개발업체

SI 업체

VAD 업체

4. 현지 진출 기업 사례

NICE정보통신, 'NICEPay' 출시

지난 2016년 4월, NICE정보통신은 'NICEPay' PG 서비스를 런칭함. 해당 서비스는 보안 시스템 및 부정거래탐지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지 은행 및 카드사까지 포함하여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증대시킴. NICE정보통신은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해갈 것을 목표로 함.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는 NICEPay 서비스가 불안정해있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안정감을 부여했다며 사업파트너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코발트레이, 인도네시아 결제 시장 진출

POS기기를 공급하는 코발트레이는 지난 2015년 7월, 인도네시아 심(SIM) 카드 판매업체인 티아이폰(TiPhone)과 스마트 포스(Smart POS) 사업 계약을 체결함. 코발트레이는 티아이폰 매장에 POS기기를 납품하여 시험 운영을 할 계획임. 해당 제품은 카드리더, NFC 등 일체형으로 구성됨

코발트레이가 POS기기를 납품하는 반면, 아이벡스랩과 유시스는 POS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솔루션 현지화 등을 담당하여 코발트레이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음. 국내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나선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우수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비씨카드-만디리은행, 합작사 설립 계약 체결

한국 비씨카드와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인 만디리은행은 2015년 9월 합작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합작사가 설립되면 비씨카드는 인도네시아의 신용카드 시스템 구축, 가맹점 확대, 단말기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만디리은행은 비씨카드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영업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특히, 비씨카드의 카드 결제 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직수출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를 통해 한국 결제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임

5. 유망제품 홍보 방법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전시회 참가

인도네시아 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전시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부분의 전시회는 인도네시아전자상거래협회(IDEA, Indonesian E-Commerce Association)가 주관함. 인도네시아전자상거래협회(IDEA)는 전시회 이외에도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전자상거래협회	
홈페이지	www.idea.or.id
전화번호	+62 21 25502625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전시회는 크게 IRX Indonesia, Indonesia E-commerce Summit & Expo, E-commerce Show Indonesia가 있음. 결제 서비스업체, 클라우드 업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등이 참가하기 때문에 해당 전시회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음

표 3.1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관련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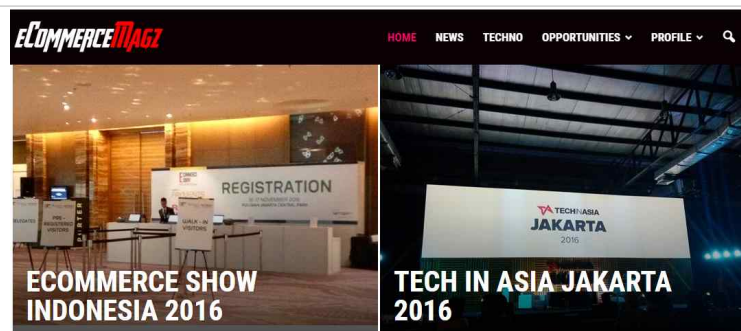
전시회명	
	IRX Indonesia: Internet Retailing Expo
	IESE: Indonesia E-commerce Summit & Expo
	E-commerce Show Indonesia

출처 : 각 홈페이지

현지 전문 매거진을 활용한 제품 홍보 활동

EcommerceMagz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전문 매거진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전시회 정보 및 최신 뉴스를 파악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Profile > Startup'이라는 메뉴를 통해 기업 홍보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음

그림 3.3: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전문 매거진



출처 : EcommerceMagz(ecommercemagz.com)

발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자 : 2017.02.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16 NIPA. All Right Reserved. Printed in Korea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TEL) : 043-931-5000